

보도자료

제목	백남준아트센터, KT와 함께 3D 생성형 AI 기술로 전시 확장		
문의	전시: 김윤서 학예연구사 t.031-201-8553 m.010-4780-1020		
	취재: 이상아 학예연구사 t.031-201-8549 m.010-4739-5307		
자료	이메일에 첨부된 자료 다운로드		
배포	2024.05.23.	쪽수	총 5매

백남준아트센터, KT와 함께 3D 생성형 AI 기술로 전시 확장

- ▶ 백남준아트센터가 KT와 기술 협력으로 백남준 전시를 가상 공간으로 확장
- ▶ KT 자체 개발 3D 생성형 AI 기술로 백남준 작품 초실감 구현, 실제로 전시장에 방문한 것과 다름없는 경험 제공
- ▶ 이번 기술 협력으로 구현한 전시는 백남준아트센터의 ‘굿모닝 미스터 오웰’ 40주년 특별전 《일어나 2024년이야!》로, 실제 전시 중인 소장품 〈TV 부처〉, 〈칭기즈 칸의 복권〉, 〈로봇 K-456〉, 〈TV 첼로〉를 초실감형 3D 콘텐츠로 온라인에서 공개
- ▶ 20세기에 예술과 기술의 결합으로 초연결을 달성한 예술가 백남준의 실행에 착안해 21세기에 초실감형 기술로 디지털 트윈 전시 구현
- ▶ 백남준 예술 정신과 공유의 가치를 확산하고, 백남준아트센터가 전 세계 각지의 다양한 관객과 연결되기를 기대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관장 박남희)가 KT(대표이사 김영섭)와 함께 가상 공간에 전시를 확장한다. 이번 KT와의 협력은 용인에 위치한 아트센터에서 성황리에 선보이고 있는 ‘굿모닝 미스터 오웰’ 40주년 특별전 《일어나 2024년이야!》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하는 것으로, 온라인 환경에서도 실제 전시장에 방문한 것과 다름없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KT가 자체 개발한 3D 생성형 AI 기술이 사용되었으며, 기존 기술 대비 현실감 있는 복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백남준아트센터는 20세기에 예술과 기술의 결합으로 초연결을 달성한 예술가 백남준의 실행에 착안해 21세기에 초실감형 기술로 디지털 트윈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히며 KT와의 협업 배경을 설명했다. 백남준아트센터는 실제 전시 공간에서 선보이고 있는 소장품 〈TV 부처〉, 〈칭기즈 칸의 복권〉, 〈로봇 K-456〉, 〈TV 첼로〉를 KT의 초실감형 3D 기술로 온라인에서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

3D 전시는 5월 21일부터 1개월 간 백남준아트센터,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내 홍익 AI 뮤지엄과 KT 디지털 트윈 웹사이트(www.ktdigitaltwin.com)에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백남준아트센터에서는 실제 전시 환경에서의 감상은 물론 가상 환경에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된 전시까지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1984년 인공위성으로 전 세계 각 가정에서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를 볼 수 있도록 생중계했던 획기적인 사건, 백남준의 위성 예술 <굿모닝 미스터 오웰> 40주년에 성사된 이번 협력은 예술과 AI를 융합한 대표적인 디지털 트윈 사업 사례로 전시 뿐 아니라 패션, 게임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을 열었다.

백남준아트센터 박남희 관장은 “KT와 협력한 디지털 트윈 전시 서비스를 통해 백남준 예술 정신과 공유의 가치를 확산하고, 백남준아트센터가 전 세계 각지의 다양한 관객과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백남준아트센터 전시 개요

- 전 시 명 : 《일어나 2024년이야!》 *Wake Up! It's 2024*
- 전시기간 : 2024.3.21. ~ 2025.2.23.
- 전시장소 : 백남준아트센터 제1전시실 및 온라인
- 기 획 : 김윤서 (백남준아트센터 학예연구사)
- 참여작가 : 백남준, 바밍타이거 X 류성실
- 주최주관 :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문화재단
- 협 력 : KT

■ 백남준아트센터 전시 《일어나 2024년이야!》 관람안내

- 관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 입장 마감: 관람 종료 1시간 전
- 휴 관 일: 매주 월요일
- 관람요금: 무료

■ 디지털 트윈 3D 전시 《일어나 2024년이야!》 관람안내

- 접속기간 : 2024.5.21. ~ 6.19.
- 웹사이트: www.ktdigitaltwin.com

■ 디지털 트윈 3D로 구현한 특별전 《일어나 2024년이야!》 온라인 전시 전경



■ KT의 초실감형 3D 기술로 온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는 백남준아트센터 주요 소장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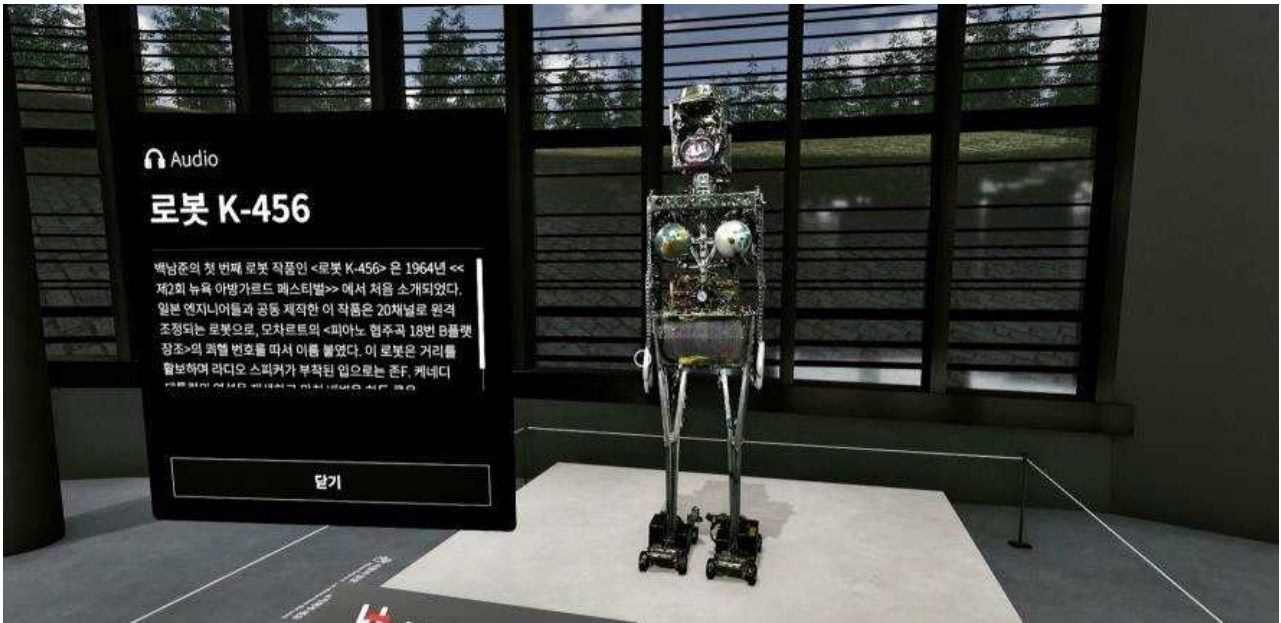
백남준, <칭기즈 칸의 복권>, 1993

<칭기즈 칸의 복권>은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 독일관에 전시되었던 작품으로, 자전거를 탄 로봇이 텔레비전을 가득 싣고 있는 조각이다. 백남준이 형상화한 20세기의 칭기즈 칸은 잠수 헬멧을 쓴 머리, 철제 주유기로 된 몸체, 플라스틱 관으로 만든 팔로 구성되었으며, 말 대신 삼천리 자전거를 타고 있다. 자전거 짐받이에는 10대의 텔레비전 케이스를 가득 싣고 있으며 텔레비전 속 기호와 문자는 네온으로 빛난다. 과거 인류가 수레와 말, 자동차 따위의 운송 수단으로 물자를 이동하고 권력을 쟁취했다면, 21세기는 광역 통신망을 통한 정보 중심 사회가 될 것을 예견하며 “전자초고속도로”라는 개념으로 동양과 서양을 잇는 실크로드가 인터넷으로 대체된 것을 시각화한다. "칼과 피, 고통과 증오, 살육과 침략으로 얼룩진 전쟁으로서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 가슴과 가슴 그리고 기술을 한데 묶어 세계를 연결하는 나만의 칭기즈 칸을 세상을 내놓겠다."는 백남준의 말은 그가 예술에 위성을 결합한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백남준, 〈TV 부처〉, 1974(2002)

〈TV 부처〉는 부처 조각상이 카메라에 실시간 촬영중인 스스로의 모습을 텔레비전을 통해 바라보고 있는 설치 작품이다. 카메라와 촬영 대상, 모니터가 서로 순환하는 폐쇄회로 구조는 백남준이 자신의 작품에 즐겨 사용하던 요소로, 깨달음에 이른 부처와 텔레비전의 조합이 재미있는 대조를 만들어낸다. 백남준은 텔레비전을 통해 가상의 세계와 물리적 세계를 함께 살아가며 자아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선적인 경험을 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텔레비전 안과 밖의 두 부처상은 같으면서도 다른 시공간 속에 있기 때문이다. 〈TV 부처〉는 관객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폐쇄회로의 기계 구조 안에서 카메라로부터 모니터까지 전송되는 미세한 시간의 차는 얼마만큼 유의미한가. 부처상이 화면에서 생방송으로 현재 자신의 이미지를 보는 것과 녹화한 비디오테이프를 과거 자신의 모습을 돌려 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TV 부처〉는 서로 묻고 답하는 쌍방향 텔레비전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생방송에 대한 백남준의 구상을 함축한다.



백남준, 〈로봇 K-456〉, 1964(1996)

백남준은 첫 번째 로봇 작품 〈로봇 K-456〉에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18번 B플랫 장조〉의 괴헬 번호를 따서 이름 붙였다. 엔지니어와 공동 제작한 〈로봇 K-456〉은 20채널로 원격 조종하는 로봇으로, 거리를 활보하며 라디오 스피커가 부착된 입으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을 재생하고 마치 배변을 하듯 공을 배출하기도 했다. 〈로봇 K-456〉은 백남준과 각종 퍼포먼스에서 함께 공연했고 1982년 뉴욕 휘트니 미술관에서 열린 백남준의 회고전에서는 길을 건너다가 자동차에 치이는 교통사고 퍼포먼스로 주목받았다. 백남준은 이 퍼포먼스를 “21세기 최초의 참사”라 명명하며, 기계적 합리성의 허구를 드러내고 삶과 죽음을 경험하는 인간화된 기계를 제시했다. 〈로봇 K-456〉은 기술에 대한 백남준의 집요한 관심과 협업을 잘 보여주는 작품 중 하나이다. 백남준의 1960년대 로봇 제작은 텔레비전과 컴퓨터 실험, 1970년대 말 위성 실험을 거쳐 1984년의 〈굿모닝 미스터 오웰〉에 당도하는 여정을 함축한다.